

2. 천도교의 중심사상

1) 인내천(人乃天)의 요의

천도교의 종지(宗旨)는 인내천이다. 천도의 진리를 요약하면 인내천의 원리에 귀납(歸納)된다. 인내천 사상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창명된 위대한 사상이다. 인내천은 천도교(동학)의 제1세 교조 수운대신사 최제우(水雲大神師 崔濟愚)선생께서 경신(庚申·1860)년 4월 5일 한울님과 의 문답에서 시천주(侍天主)의 진리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이란 가르침을 받고 한울님의 마음이 곧 대신사의 마음임을 깨달은 데서 비롯되었다. 인내천이란 술어는 수운대신사의 심법(心法)을 이어 받은 천도교(동학)의 제3세 교조 의암성사 손병희(義菴聖師 孫秉熙)선생에 의해 확명 되었다. 바야흐로 대세는 인내천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내천 진리를 온 세상에 밝히므로 써 도덕문명 선진국이 되리라고 전망된다. 하루속히 인내천 진리가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인내천이란 낱말에 포괄(包括)되어 있는 개념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①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뜻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의 이치 기운으로 태어났고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의 이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무형(無形)한 한울님이 유형화(有形化)된 것이 인간이므로 한울님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한울님 모심을 자각할 수 있고, 또한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의 모든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주 만물중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우주 본체인 한울의 격(格)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까닭에 인내천이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과 참 모습을 밝혀 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② 사람을 한울님 같이 존엄하게 섬기자는 뜻

인내천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인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 그리고 인생의 의의를 자각케 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곧 한울이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존엄하게 섬기자는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만과 멸시와 천대와 압박과 착취가 있을 수 없고 더욱이 학살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고, 인간성 회복, 도덕 질서 확립의 길을 밝혀 주는 인류 구제의 새 사상이라 할 수 있다.

③ 한울 사람으로 자아완성을 실현하자는 뜻

사람의 본래(本來)는 한울이지만 사람이 한울님 모신 원리를 모르고 마음이 육신과 물질에 집착(執着)이 되면 결국 금수 같은 사람으로 전락되고 만다. 따라서 인내천은 수심정기(守心正氣), 성경신(誠敬信), 이신환성(以身換性)의 수행을 통해서 천심을 찾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자아완성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이 나아갈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 된다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인생의 목적 방향을 밝혀 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④ 모든 사람이 일체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립하고 자유, 평등, 평화를 실현자는 뜻

인류는 역사 이래 사람이 곧 한울인 진리를 모른 채 자주성을 상실하고 예속된 생활을 해 왔다. 그리고 불합리, 부자유, 불평등, 전쟁, 질병,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롭게 살아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힘(苦海)라고 규정짓기도 하였다. 인내천 진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찾고 지상신선의 대 평화 대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밝혀 주고 있다. 즉 인내천(人乃天)은 인간존중, 인간본위(人間本位)사상이라 할 수 있고 자유, 평등, 평화 실현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⑤ 인생은 무궁(無窮)하다는 뜻

흔히 인생은 허무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인내천 진리를 알고 나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고귀하고 무궁한 존재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울은 무궁하다.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한다. 사람이 곧 한울이니까 사람은 무궁할 수밖에 없다.

수운 선생께서는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영세무궁 하단말가」라고 노래하셨다. 육신은 짧고 성령(性靈)은 영원하다. 육신은 생사(生死)를 면치 못하지만 성령은 생사가 없다. 무궁할 뿐이다. 의암성사 법설에 「육신은 사람의 한때 객체(客體)요 성령은 사람의 영원한 주체(主體)」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본래의 나인 성령은 천지가 갈리기 전부터 있었고 천지가 없어질 때 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무궁한 존재임을 밝혀 주고 있다. 인내천은 「인간무궁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무궁성을 깨달을 때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⑥ 인류는 한 동포 한 형제라는 뜻

인내천 진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한울님의 아들딸이며 한울이 한울 된 신령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류는 너 나가 있을 수 없고 한 동포 한 형제 한 가족임이 분명해진다. 지금 도처에서 화합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화합

의 원리와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내천 진리를 적용하는 날 화합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온 세상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는 날 세계는 하루아침에 천국이 될 것이다. 인내천은 공동체 의식, 화합의 진리라 할 수 있고, 최고 지상의 민주주의 원리라 할 수 있고, 세계 일가주의라 할 수 있고, 이상세계 건설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⑦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

한울님은 밝고 밝은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무한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고 사람이 곧 한울이니까 사람은 무한지혜, 무한능력을 소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경전에 일념재자만사여의(一念在茲 萬事如意)라는 말씀이 있다.

수련을 많이 해서 마음이 일심(一心)이 되면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⑧ 천지부모(天地父母)에 효성을 다하자는 뜻

천지가 만물의 부모임을 알고 한울님을 부모님 같이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알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윤리가 아닐 수 없다.

⑨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뜻

인내천진리를 알고 나면 자연히 인오동포 물오동포(人吾同胞 物吾同胞)의 원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자연을 내 몸같이 아끼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연환경 보전은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내천 진리를 자각하는 날 그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⑩ 이 땅 위에 한울 나라를 건설하자는 뜻

인내천 원리에서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차원 높은 인식을 하게 되고, 화합의 정신을 갖게 되고 자주와 자유, 평등, 평화이념을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천인합일의 자아완성과 직결되는 동시에 이 땅 위에 영원히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신념과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한울인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한울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며 종교 간의 화합을 추구하고 이 땅위에 천국을 건설하고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밝혀 주고 있다.

2) 신 관(神觀)

* 이하 중심사상은 과거의 여러 교재를 활용하였음

천도교(동학)는 「한울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본래 마음이 곧 한울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거룩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믿으며 한울님을 부모와 같이 섬긴다. 이를 시천주(侍天主)라고 한다. 이것은 한울님과 사람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의 새로운 신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관은 종래의 외계에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온 초월적 유일신의 관념과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생각한 내재적 범신(汎神)의 관념을 초월한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인 신이면서 또한 내재적인 신을 뜻한다. 말하자면 한울님은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이고, 인격적이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새로운 신관이다. 나아가 한울님은 무궁한 절대자로서 만물을 화생하는 조화(造化)의 주재자이면서, 인간을 통하여 계속 섭리하고 계시는 조화의 신으로 믿는다. 한울님은 우주 만물을 낳으신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만물 속에 내재하여 간섭하고 명령하면서 무궁한 생성발전과 변화의 그 조화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울님은 자연계와 모든 생명과 사회와 인간, 그리고 우주 만유의 질서를 주재하는 지공무사하고 정시정문(正示正聞)·전지전능(全知全能)한 절대적·전일적(全一的)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조화는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로서 어떤 다른 힘의 작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울님의 섭리대로 저절로 되는 말하자면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 창조·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한울님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개념화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다. 다만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도의 깊은 경지에 이르면 누구나 한울님의 감응을 받을 수 있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한울님과 합일될 수 있다고 본다. 신(神)은 오직 한 분인데 인간의 관점(觀點)에 따라 달리 부르고 달리 생각할 뿐이다.

3) 내세관(來世觀) (요약)

내세관은 사람의 사후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무형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므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인류는 내세에 대하여 인지(人智)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사후문제를 유령 설, 극락 또는 천당 지옥 설, 윤회전생 설, 무신론 등 여러 가지로 말하는 줄 안다.

그런데 수운대신사(최제우)께서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창명함으로써 내세관을 전혀 새롭게 정립하셨다. 수운대신사는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라고 강조하시면서 장생불사(長生不死)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의암성사(손병희)께서는 본래의 나는 『천지가 이루어지기 전 억억 만 년 전부터 있었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억억 만년이 또한 나에게 이르러 끝난다』고 말씀하셨다. 나라는 것은 몇 십년 밖에 못사는 짧고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극락을 누릴 수 있다는 크나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근본에서 죽고 사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본래의 나는 생사일여(生死一如), 장생불사(長生不死), 불생불멸(不生不滅)인 것이다. 유형한 육신만 보니까 죽는다 산다 하며 죽음의 공포 비애를 느낀다고 보는 것이다.

경전에 무형한 한울님이 유형화된 것이 인간(汝必天爲天者)이라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유형(有形)에서 다시 무형(無形)의 본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며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죽었다 하지 않고 환원(還元)한다고 말한다.

경전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에 우주는 원래 영(靈)의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영의 바다에서 무수히 출몰하는 것이 삼라만상이요 인간인 것이다. 태평양 바다에 무수한 물결이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물결은 무수히 생기고 없어지지만 바다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잔디밭에 잔디가 나고 자라고 죽고 하지만 잔디밭 자체는 크게 변성해 나가는 것이다. 천도교의 내세관은 장생불사설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작용을 세 가지로 갈라 볼 수 있다. 진리를 모르고 육신과 물질에 마음이 집착되어 복잡하게 작용하는 마음, 한울님 마음으로 시비선악 정사를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한울님 본성(本性)자리에서 무 선악, 무 차별, 무 분별 상태에 이른 마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죽어서도 성령은 그대로 연장되어 작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진리를 모르고 환원하면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방황하게 되고, 장생의 진리를 알고 환원하면 자손과 후학들 심령에 융합 일치되어 장생하게 되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이 되어 환원하면 우주의 심법(心法)과 합일되어 영원한 자유극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인간의 내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장생론을 말한다.

① 육적장생(肉的 長生)

사람은 대개 정신적 번뇌와 미망, 불건전한 생활로 인하여 천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사, 변사, 횡사 등으로 무의미하게 죽는 경우가 많다.

수도를 생활화하여 마음을 닦고 천리 천명대로 살면 심화기화(心和氣和)

가 되어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한한 희열 속에 살 수 있다.

마음이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질병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육적 장생은 수도 생활을 통해서 무병장수하는 동시에 대대손손 혈통으로 영원히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② 영적 장생(靈的 長生)

대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성령마저도 먼 곳으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천도교는 한울님을 믿고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닫고 천인합일이 되면 사후에 성령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족과 후학들의 심령에 융합되고 한울님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장생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울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면 장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도 한울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방향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고 괴롭게 살아가기 마련이다. 삶과 죽음은 성령 상으로는 하나인 것이다. 천도교를 믿되 수도를 잘 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장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천인합일이 되면 한울님 성령과 융합되어 이 세상과 더불어 영원히 장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영적장생 또는 성령장생이라고 한다.

③ 덕업장생(德業長生)

사람이 천도를 깨닫고 천명대로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적선을 하여 많은 덕업을 쌓게 되고 그 덕업의 자취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덕업장생이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고 국가 사회에 공덕을 쌓고 좋은 작품을 남기면 이것이 덕업이 되는 것이다. 특히 포덕(布德)은 한울님의 뜻과 진리를 널리 퍼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 주는 것이므로 가장 큰 덕업이라 할 수 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세관 설명을 수록함)

4) 우주관(宇宙觀)

우주관이란 우주의 본질, 생성원리, 발전 등에 관한 견해를 말한다. 인간은 우주를 떠나 살 수 없다. 우주 속에서 우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에 대한 사고(思考)와 생활양식이 좌우되고 인간의 생존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드시 우주관, 신관에 의해서

인지(人智)의 발달 정도를 측량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자기관조(自己觀照)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무량광대하고 무한 무궁하므로 유한한 인간의 좁은 식견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인류는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많은 논쟁을 거듭해 왔고 그로 인해서 각각 다른 체제와 문화를 이루어 놓기도 하고 처절한 전쟁을 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수운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창명함으로써 선천시대(先天時代)의 여러 가지 우주관의 대립과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로 귀일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① 우주관의 유형

ㄱ. 유물론(唯物論)

물질만이 종국(終局)의 실재(實在)이며 정신적 현상은 모두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학설이다. 또한 물질이 정신보다 먼저요 인식된 세계는 사실 그대로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변증법적 유물론(辯證法的唯物論), 유물사관이 나왔고 무신론과 공산주의사상이 나왔다.

ㄴ. 유심론(唯心論)

정신을 떠나서 물질은 없고 천지간의 모든 현상은 모두 정신의 발현(發顯)으로 보며 정신을 종국(終局)의 실재로 보는 학설이다.

물질의 구극(究極)이 영(靈)이나 물(物)이나? 물(物)은 인식에 불과하고 정신이 먼저라고 보며 우리의 인식(認識)된 세계는 현상계일 뿐 본래의 세계는 아니며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ㄷ. 실재론(實在論)

이는 제3의 원리로 물질 양론을 통일코자 하는 철학이다.

ㄹ. 이기설(理氣說)

송대(宋代)의 유학자들의 학설로 이(理)는 우주의 본체요 기(氣)는 그 현상이라 보며 여기에는 주리설(主理說)과 주기설(主氣說)이 있다. 동양철학의 성리학(性理學)은 우주의 정신적 본체를 (理), 물질적 본체를 기(氣)라 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로 우주 생성을 도식화하여 무극(無極)→태극(太極)→이기(理氣)→음양(陰陽)→오행(五行)→만물화생(萬物化生)으로 설명하였다. 이

밖에 조물주(造物主)가 처음으로 우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창조론(創造論),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간단에서 복잡, 하등에서 고등, 동종(同種)에서 이종(異種)으로 진화하며 생존경쟁에 적합한 것만이 존속해 나아간다는 진화론(進化論), 인위(人爲)를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무위자연이 우주만물의 본체라는 무위자연설(無爲自然說) 등이 있다.

② 물심 양론의 쟁점과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질이 정신보다 먼저다. 물질이 정신을 낳았다. 아니다. 물질은 인식에 불과하다 물질의 구극(究極)은 물질이 아니라 영(靈)이다.』 이와 같이 물심 양론의 쟁점은 심각한 문제로 계속돼 왔고 드디어는 동서냉전으로 비화하여 우리나라의 분단까지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심(物心)양론은 이와 같이 철학계의 연구와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화와 윤리 그리고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ㄱ. 유물론의 세계는 인간 생활을 물질이 좌우한다고 보는 동시에 매우 동적(動的)이고 과학적이고 투쟁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는 인정사정없는 냉정하고 사막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 그들은 계급투쟁이 끝나는 날 창조육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유물론이 아니라 유심론적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한 결과로 되어진다. 진시황은 통일천하의 욕망을 달성하자 죽지 않고 장생 할 욕심이 또 생기어 불사약을 찾기에 급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는 결국 종교적 심성이 발동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ㄴ. 유심론의 세계는 정신이 물질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생의 의의를 깊게 생각하게 되고 종교, 윤리, 도덕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을 동적(動的)인 면보다 정적(靜的)방향으로 이끌면서 미신 망상에 흐르기 쉽고 부패, 타락을 가져오기 쉽다고 본다.

이와 같이 물심 양론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조화(調和)와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 조작으로는 안 되고 우주 본체의 원리를 깨닫는 새로운 진리의 창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이것이 이른바 천도교(동학)의 지기론(至氣論)이다.

③ 동학(天道敎)의 우주관-지기론(至氣論)

천도교(동학)는 이상의 모든 학설의 편견을 수용 극복 지양(止揚)하고 그

근본을 꿰뚫어 하나로 귀일(歸一)시킨 새로운 우주관인 지기론(至氣論)을 창명하였다.

동학(천도교)은 우주의 본체를 지기(至氣)라 한다.

「지기」는 물질과 마음이 생기기 이전 근본 자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기론의 우주생성원리를 무위이화(無爲而化)라 한다. 수운대신사는 무위이화(無爲而化)를 조화(造化)라고 풀이하었다. 무위이화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근본을 밝히어 하나로 귀일 시킨 자율적 창조진화론(自律的 創造進化論)이라 할 수 있다.

경전의 「天生萬民(한울이 만백성을 내었다)」는 말씀은 창조론을 의미하고 「오는 세상에 견주면 이치가 나의 나 된 것을 생각함에 다름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찾으면 의심컨대 사람으로서 사람 된 것을 분간키 어렵도다(來世而比之則 理無異於我思我 去世而尋之則 感難分於人爲人)라는 말씀은 분명 진화론을 의미한다.

경전에 「지기」를 해석하기를 「지(至)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氣)라는 것은 허령(虛靈)이 창창(蒼蒼)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渾元)한 한기운이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至)는 극(極)을 의미하여 그것은 무극(無極)의 뜻이므로 우주의 근본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지기(至氣)는 허령(虛靈)으로 우주에 편만하여 어느 일에도 간섭하지 않음이 없으며 어느 일에도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기(氣)」를 물질적 본체로 생각하지만 「지기(至氣)」는 물질적 본체로 머물지 않고 영적 정신적 본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한 우주의 궁극적 본질로 설명된 것이다. 여기서 「기(氣)」철학의 「氣」와 동학의 「지기」는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말하자면 위의 설명만으로 보면 「지기」는 성리학적 우주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으나 「지기」는 관찰 대상으로의 「氣」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화할 수 없는 천령(天靈)의 「지기」로서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을 의미하며 모든 창조와 나아가 진화의 근원으로서 우주만유와 사람에게 접령접기(接靈接氣)하는 기화의 신이라는 것이다.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는 강령 주문의 해석에서 「지기」는 한울님의 영기로서 사람에게 접령(接靈) 접기(接氣)하는 기화지신(氣化之神)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기」는 「지화지기 지어 지성(至化至氣 至於至聖)」이라고 한 점에서 우주만유의 생성 진화과정에 무기물·생물·인간·초인간(성인)에 이르는 모든 창조와 진화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기」가 성리학적인 근원적 물질 또는 모든 생명과 정신의 본

체로서의 「기」 또는 「이」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만유의 생성·진화의 섭리와 사람에게 강령을 내리고 성인에 이르게 하는 한울님의 영기임을 뜻한다. 「지기」는 우주만유에 접하고 사람에게 강림하여 접령하는 기운으로서 한울님과 표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기」의 기화지신(氣化之神)이 내 몸에 강림한다는 것은 한울님의 영이 나에게 감응하여 시천주(侍天主)의 경지에 들어가 성인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며 이 점에서 한울님과 지기는 이위일체(二位一體)임을 의미한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지기」는 단순한 우주생성도식의 최상위 개념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인격신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천도교의 우주관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수용·극복일 뿐 아니라 초월적 유일신에 의하여 우주 만물이 화생하였다는 창조론을 수용·극복하고 나아가 진화론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한울님의 조화로 보고 조화는 곧 무위이화(無爲而化)라고 하여 도교적 무위(無爲)사상까지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천도교의 지기론은 이기이원론의 주리설(主理說)과 주기설(主氣說) 또는 유물론과 유심론,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혹은 무위자연설 까지도 극복 지양하여 하나로 귀일 시킨 새로운 원리를 창명한 것이다.

요컨대 우주 만유와 만상(萬象)은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인 「지기」의 기화에 의해서 성쇠(盛衰)의 변화와 만화귀일(萬化歸一)의 순환이법으로 새로운 진화와 창조를 이루어 나아간다고 본다.

<천도교 교리와 사상 (중앙총부발행, 홍장화 편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기」는 전통적 기론(氣論)에서 보였던 ①존재의 근원적 힘으로서의 기, ②우주의 생성 원리로서의 기, ③삼라만상의 생성 자료로서의 기로 그치지 아니한다.

「지기」는 위의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동시에 나아가 모든 생명의 근원적 영체로서 인간의 청원(請願)에 감응하는 거룩한 기화의 신(氣化神), 조화의 신(造化神)으로서 승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주관을 개괄해 보았다. 천도교의 지기론(至氣論)은 선천시대의 유물(唯物)·유심(唯心)·이기설(理氣說)등의 한계와 편견 대립을 원천적으로 지양하고 하나로 귀일 시킨 새로운 우주관으로서 우주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원리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지기론(至氣論)의 진수를 터득하려면 깊은 사색과 동서고금의 여러 학설을 비교 연구하는 동시에 특히 성심(性心)수련으로 진리를 직각(直覺)하는 종교적 체험이 필요할 것이다. 우주의 본체는 지기(至氣)요 생성 원리는 무위이화(無爲而化)요 무위이화는 조화(造化)즉 자율적 창조진화라고 할 수 있다.

5) 개혁사상(開關思想)

「개혁(開關)」이라면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처음 열린다는 뜻인데 동학의 개혁사상은 인문(人文)의 개혁을 의미한다. 세계가 암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류의 기성 문화가 막다른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대 변혁을 통하여 새 사회를 열어 나아간다는 것이다.

천도교(동학)에서는 인류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구분하여 지나간 구시대를 선천(先天)이라 하고 창도 후 미래의 새 시대를 후천(後天)이라 한다.

낡은 선천의 문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의 문화가 열린다는 뜻으로 후천개혁(後天開關)을 내세운다. 후천개혁은 인간 중심의 문화개혁을 뜻한 것으로 인류문화 전반의 일대 변혁과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 말이다. 이와 같은 후천개혁의 역사관과 문화관은 역사의 순환에 따른 천운의 회복으로 새로운 인문개혁의 문화가 열린다는 뜻이다.

과연 오늘날 급격한 문화적 변혁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수 천 년 동안 쌓아올린 문명의 높이보다 최근 백여 년에 이룩한 문명의 높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혁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와 문화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천도교(동학)는 이러한 개혁사상으로 신인간 창조와 신문화 창조의 새로운 지평을 내다보고 개혁운동의 주체임을 자처한다.

천도교(동학)에서는 정신개혁(精神開關), 민족개혁(民族開關), 사회개혁(社會開關) 등 삼대 개혁을 말하며 우선 이신환성(以身換性)의 수련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보국안민사상(輔國安民思想)

천도교(동학)는 인간 구제의 보편적 진리를 지니면서 동시에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이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수운대신사(최제우)께서는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의 대 이상을 내세우면서 한편 민족의 대 선각자로서 아국운수보전(我國運數保全)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경전에 일본과 서양의 한국 침략을 경계하고 배격하면서 서구열강의 청(중국)나라의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도교는 외세의 침략을 배척하는 한편 민족주체 의식과 보국안민을 내 세움으로써 민족자주의 항일구국운동을 주도하였다.

근대 한국민족사에서 민족주의는 초기에 그 흐름이 ①동학운동 ②개화운동 ③위정척사(衛正斥邪)운동 등 세 갈래로 나타났다.

당시 개화운동이 진보적이었으나 민중적 기반이 없이 외세를 배경으로 한

한계성이 있었고, 위정척사운동은 주체적이었으나 수구적 중화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학운동의 민족주의는 위의 두 가지 한계를 다 같이 극복하여 민중적 기반 위에 진보적이면서 주체적인 근대적 민족주의의 효시(嚆矢)였다.

이러한 천도교의 보국안민사상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민중으로 하여금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보국안민의 주체로서 앞장서게 하는 민족적 자각의 의식화를 가져왔다. 양반지배계급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나라를 구하는 힘이야 주인임을 일깨운 것이다. 이리하여 보국안민 사상은 민족주체세력 형성의 결집력이 되어 민중에 의한 근대화 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케 된 것이다.

※ 보국안민은 지상천국 건설의 과정으로 모든 나라의 보국안민을 뜻한다.

7) 동귀일체사상(同歸一體思想)

동귀일체(同歸一體)는 천지무궁(天地無窮)의 근본을 깨달아 사람과 한울이 하나임을 깨닫고 참된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로 귀일함을 뜻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겨레와 인류가 하나가 됨을 말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진리로 돌아감을 말한다.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시켜 일치점을 찾고 모든 모순과 갈등을 지양하는 통일의 새로운 창조를 뜻한다. 투쟁과 분열의 역사에서 벗어나 평화와 합일의 길로 나아감을 말한다.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벗어나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이 되어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이 됨을 말한다.

한편 동귀일체는 천인합일, 개전일체(個全一體)의 원리로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양극 이념을 통합 극복하는 협동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것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이념인 것이다.

우주는 원래 영(靈)의 표현으로서 한 이치, 한 기운, 한 생명체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한 동포,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이다.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인 것이다.